

한국법제연구원 행복드림봉사단을 소개합니다.

행복드림봉사단은 작은 나눔 큰 기쁨을 슬로건으로 2018년 5월에 발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호회의 명칭에서 보듯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세종시 인근 장애인 시설, 노인요양시설, 영유아 보육원 등에서 현장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금액을 보육시설 등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이 발족되기 전에는 기관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보자는 마음에서 동호회 성격의 봉사단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발족 당시 20명 내외로 가입을 예상하였으나, 37명이라는 많은 직원이 가입하였습니다.

설립된 기간은 짧으나, 그간의 활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5월 2일에 동호회를 설립하였고, 해당연도 9월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종시 인근 지역은 대부분 연고가 없어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봉사단의 이름으로 처음 현장봉사를 했던 곳은 영명보육원이었습니다. 약 15명의 봉사단원이 찾아가 보육원내 독서방, 놀이터, 강당, 야외시설 등을 청소하였습니다. 봉사활동에 앞서 아이들의 밝은 모습과 보육원에서의 생활을 보니 괜히 몽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지금처럼 밝고 멋진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은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에서 어르신들의 경로잔치에 급식과 주방보조를 지원했습니다. 여건상 많은 직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시설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어르신들께 가져다 드리고,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며 작은 도움을 보탬 하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였으나,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손길보다는 꾸준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봉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
전문연구원
✉ bskim@klri.re.kr





2019년에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김장담기였습니다. 세종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뜨는 집'에서 '사랑의 김장담기'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그날 김장김치 500포기를 담겼습니다. 이미 집에서 부모님 또는 가족과 함께 김장을 담궜던 사람이 많았는지 원활하게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장 외에 150만원 상당의 후원금도 전달하였습니다. 거주시설의 원장님과 저희 연구원 원장님 직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연구원 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는 연말연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장을 하고 나서 직원들과 그리고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김장에 관한 얘기, 삶에 관한 얘기 등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즐거운 점심시간도 보냈습니다. 시설 이름처럼 '해뜨는 집'에 일하시는 직원들,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얼굴에 해처럼 밝은 미소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힘든 김장 봉사에도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하는 연구원 가족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유익하고 보람된 봉사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 있었던 동해안 산불피해 현장도 방문하였습니다. 원장님과 동호회 회장님 등과 같이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재해복구에 전념하시는 관계자 분들의 말씀을 듣고 현장의 상황을 보니 그날의 산불이 얼마나 대단했고, 그래서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산림훼손, 관광지 훼손 등의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모

은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 현장은 여전히 위험해 직원들이 현장봉사를 하기는 어려워 성금 전달로 봉사활동을 갈음하였습니다. 이렇듯 봉사단이 발족되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활동이 어려우면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재난재해에 성금으로 작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봉사단은 단원이 아니더라도 참여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장봉사를 간 직원 중에는 봉사단원이 아닌 직원도 있습니다. 봉사단에 가입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해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성금모금에도 또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 개원 이래 봉사동호회는 처음이고, 국가정책연구기관 중에도 처음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현장 봉사활동은 올해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작년 연말처럼 직원들이 즐겁게 일했던 김장담기 봉사활동을 다시한번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시 인근에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영유아가 많았습니다. 물론 전국 각지에서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시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한 우리 연구원, 우리 세종시를 만드는 것에 봉사단이 좋은 매개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